

교회 회계의 투명성, 왜 중요한가?

◎ 조성표 (동역회 실행위원장, 경북대 교수)

최근 우리나라의 국력이 부상하고 있는 추세다. 수출 규모가 세계 9위, GDP 규모는 10위권이며, 국가경쟁력도 20위권 안에 든 명실상부한 G20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투명성지수는 20위권이며, 회계적 투명성은 30위권 중반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낮은 회계적 투명성은 많은 비용을 유발한다. 2009년도 한국 기업의 자기자본 비용은 14.1%로서 일본 기업 6.2%와 미국기업 10.2%에 비해 매우 높다. 글로벌 회계법인인 PwC는 불투명성수가 1점 올라갈 때마다 자기자본비용이 0.22% 높아진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불리한 차이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부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투명성이 낮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루고 있는 것이다.

투명성이 낮으면 그 대가를 치루게 된다.

우리 교회의 투명성은 어떠한가? 교회에서 재정은 투명하게 집행, 공개되고 있는가? 이에 대하여는 아직 긍정적인 답변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치러야 할 대가도 크다.

교회 내부의 분쟁은 대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처음에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놓고 논쟁을 벌인다. 그러다가 교회 재정을 낱알이 파헤치게 된다. 재정이 공개되면서 교회는 견잡을 수 없는 소송돌이에 빠져 헤어 나오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자.

1. 어느 신실한 성도가 교회에 주택을 헌물하였다. 교회에서는 당장 그 주택을 이용할 계획이 없어 나중에 매각하여 다른 사역에 사용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잠시 목사님 개인 명의로 등기를 해놓았는데, 이것이 횡령이라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2. 한 기독교학교 재단의 장이 공공 유용으로 구속되었다. 죄목은 돈이 없어서 교직원 봉급을 정부에서 나온 연구비로 지급하였기 때문이다. 사정은 이해가 되지만, 정부 연구비는 당해 연구에만 사용해야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공공을 유용한 것이 된다.
3. 큰 교회에서 목사님께 임의로 사용하실 수 있는 예산을 드렸다. 목사님은 교회를 방문한 어려운 목사님들에게 차비도 드리고, 선교지에 가서는 현지 선교사님들께 격려금도 드렸다. 그런데 그 금액이 점점 커지게 되었고, 나중에 교회에 분쟁이 발생하자 그 돈을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가져간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평화로운 때는 무엇이든지 괜찮아 보인다. '아멘'으로 은혜롭게 지나갈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재정문제로 비화되고 결국 수습 불능의 상태가 된다. 이것이 회계적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교회가 치러야 하는 대가이다.

기업의 언어인 회계

교회는 영리기업만큼 회계정보의 중요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영리기업처럼 회계적 수치인 이익이 업적을 평가하는 지표도 아니다. 그러나 교회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돈을 하나님의 사역에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위험한 대상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그렇기에 재정적 투명성은 모든 투명성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회계(accounting)는 조직의 재무적인 거래나 사건을 화폐단위로 측정·분류·기록·분석하여, 이해관계자가 조직과 관련하여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으로 정의된다. 기업에서 회계는 기업에 관련된 정보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전달하여 준다. 기업 경영에서 회계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그렇기에 회계를 기업의 언어(business language)라고 부른다.

교회 회계는 필요한 것인가?

그런데 교회회계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재무 활동을 계정별로 분류·기록·정리하여, 그 결과를 분석·검증·보고하는 것이다. 기업회계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파악하여 기업의 수익잠재력을 평가하고 기간 손익을 확정하여, 경영성과를 평가하고 궁극적으로 자본의 증가와 감소를 파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교회는 물질적인 조직이 아니라 영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기업과 다르다. 교회회계는 교회의 활동을 물량적인 측면에서 관리하고 측정하여 보고함으로써 사역의 효과성과 건전성, 신뢰성을 평가하는 것에 중심이 있다.

이에 권영도·남만기(교회회계, 대명, 2004)는 교회회계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① 청지기 사명 실행: 하나님의 소유된 재물에 대하여 신실하게 관리한다.
- ② 교회 사역의 기초: 예산과 회계는 교회 사역의 계획과 결산의 기초가 된다.
- ③ 효율적인 교회사무 처리: 낭비 없고, 효과적인 집행을 도모한다.
- ④ 전교인의 재무관리 참여: 교회 운영에 대한 전 지체의 참여와 소통을 도모한다.
- ⑤ 역사적인 기록: 교회에서 발생하는 재정 거래를 역사적으로 기록한다.
- ⑥ 교회의 신뢰성 제고: 투명한 회계를 통하여 신뢰성을 제고한다.

교회회계에서 예산과 결산

교회회계는 기업과 달리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회계이며, 예산의 제약을 받는 예산회계라는 특징이 있다. 즉 연초에 편성된 예산을 중심으로 집행하며, 이에 예산에 근거하여 결산을 한다. 따라서 예산과 결산이 매우 중요한데, 예산과 결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자. 예산(Budget)이란 미래의 활동 계획을 화폐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예산 편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 교회의 비전 및 사역방침과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역 따로, 예산 따르는 곤란하다. 또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참여예산편성이 중요하다. 부서별 사역계획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예산을 제출받아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함으로써, 사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 부서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예산은 주일학교 학생수, 물가인상율 등 성과와 경제상황에 맞추어 편성되어야 하며, 모든 예산서와 결산서는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예산 편성과정은 교회의 사역에 한정된 자원을 최적으로 배분하고, 동기부여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결산(Closing)이란, 회계연도별 교회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여 보고하는 것이다. 결산을 통하여 교회 예산의 집행 타당성을 검토하고, 재정

의 효율적인 배분을 도모할 수 있으며, 미래의 합리적 재정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

또 결산 심의를 통하여 수입 및 지출 예산 금액은 타당했는지, 예산 대비 수입의 과·부족 원인은 무엇인지, 명분이 없는 지출로 낭비된 사항은 없는지, 예산의 이용과 전용이 합당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 졌는지 등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차년도 예산 편성의 기초가 된다. 교회도 회계감사를 두는 것이 좋다. 회계감사는 독립된 제3자를 공동의회에서 임명하며, 회계전문가가 감사의 직임을 맡아야 한다. 이러한 전문 감사자를 통해 교회는 부정을 사전에 방지하고 투명성을 재고하며, 집행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다.

교회도 내부통제제도가 필요하다.

교회회계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내부통제제이다. 현금은 부정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서 관리해야 한다. 교회에서 부정이 발생하면 금전적 손해뿐 아니라 사람까지 잃게 된다. 따라서 재정관리는 성숙한 사람이 맡아야 하며, 효율적인 내부통제조직을 구축하여 부정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내부통제조직의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

- ① 모든 현금에 대한 취급은 2인 이상 입회 하에 진행한다.
- ② 현금을 관리하는 출납업무와 장부를 기록하는 회계업무 담당자를 구분한다.
 - 출납기능: 현금에 대한 물리적 통제 (수납, 예입, 인출)
 - 회계기능: 현금에 관한 기장 및 전표관리
- ③ 모든 입금과 출금은 은행을 통하여 출납한다. 즉 수입은 당일 은행에 입금하며, 출금은 인터넷 또는 당좌수표를 통해 지급한다. 소액 사용은 소액현금제도를 운영한다.
- ④ 모든 현금거래는 공식적인 결재시스템을 통해 운영한다.
- ⑤ 현금 및 예금 잔액에 대하여는 주기적 또는 수시로 검증한다.
- ⑥ 금고 관리 등 물리적인 현금 관리에 유의한다.

⑦ 보유 기금 및 현금을 운용할 때는 적절한 수익성을 확보한다.

교회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영성을 바탕으로 합리성을 추구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교회 본연의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업회계기준과는 다른 교회회계기준이 필요한데, 국내 교단 중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측)가 유일하게 1999년에 교회회계기준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단위교회에서 자율적으로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실행이 교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사실, 교회는 다른 종교 시설들보다 투명성이 높은 편이다. 아직은 초보수준이긴 하나 업무가 분화되어 있고, 보고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대 사회와 교회 성도들은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각종 불순한 세력으로부터 교회와 목회자를 보호하려면, 높은 투명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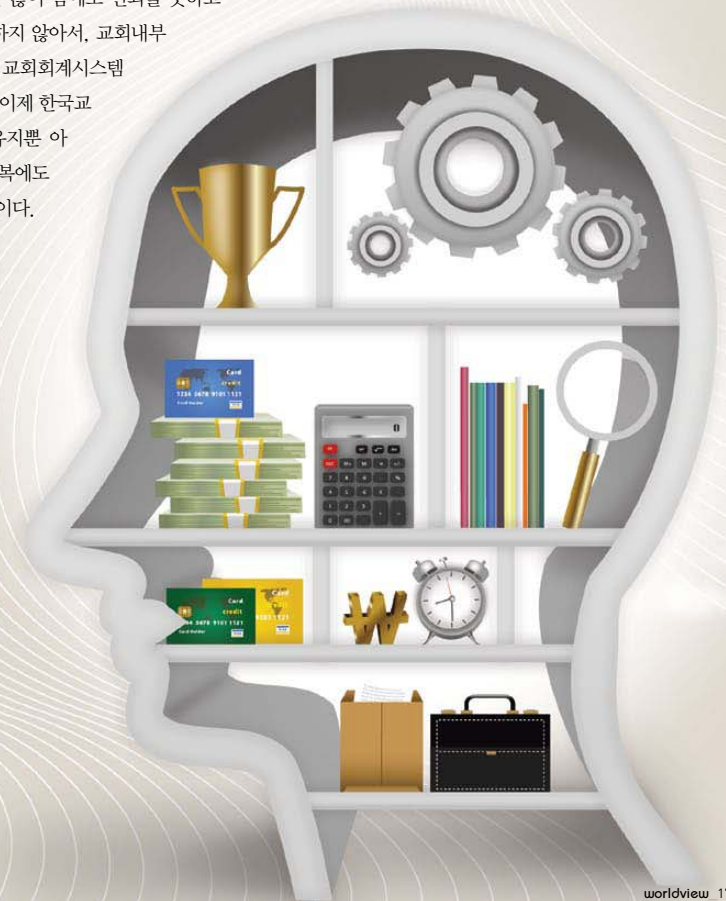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투명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 앞에서 투명한 것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한국교회의 회계 현황과 개선방안

이천화 (기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얼마 전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 실시한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에 의하면 기독교인을 포함한 일반인들의 신뢰도는 5점 척도 기준 3점 이하이다. 3점은 신뢰하지도 않고 불신하지도 않는 수준인데 이보다 낮은 2.6 수준이라 한다. 지난 6년 동안 실시된 4회 측정 결과 모두 낮은 수준으로 보고되는 것을 보면, 문제는 심각하다.

한국교회가 봉사와 구제를 많이 함에도 신뢰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언행이 일치하지 않아서, 교회내부의 비리와 부패가 많아서, 교회회계시스템이 불투명해서 라고 한다. 이제 한국교회가 복음 전파와 영성 유지뿐 아니라 사회에서의 신뢰 회복에도 큰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이다.



조성표 현재 경북대 경영학부 교수이며, 본 동역회 실행위원장이자 대구 성덕교회 장로이다. 전공은 재무회계 및 연구개발회계로 그리스도인의 재정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관련된 역서 및 저서로는 『돈걱정 없는 가정』(CUP), 『하나님이 가르쳐준 행복한 가정 생활』(이성구, 정동섭, 양은순 공저: CUP), 『하나님 돈을 어떻게 쓸까요?』(박정운 공역: CUP), 『아직도 계속되는 꿈』(6인 공저: CUP), 『완전한 성공 1, 2』(11인 공역: CUP), 『공학회계』(명경사), 『비영리단체/비정부기구의 전략경영과 기금개발』(예영커뮤니케이션), 『알수록 행복해지는 돈의 비밀』(CUP), 『IFRS 중급회계』(경문사), 『한국사회의 발전과 기독교』(10인 공저: 예영커뮤니케이션) 등이 있다.